

<성경의 의미와 유래>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성경의 의미와 유래』

<성경의 의미>

성경의 영문명인 Bible은 고대 서양에서 책을 만들던 파피루스의 무역 집산지였던 비블로스 지역에서 비롯한 고대 그리스어 토 비블리온(τὸ βιβλίον→그 책)이라는 말에서 왔다. 동양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진리됨이 검증된 책에 경(經)이라는 칭호를 붙인 까닭에 성경이라는 말이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성서(聖書)라는 말도 사용된다.

기독교에서 구약성경으로 칭하는 유대교의 성경 타나크(히브리 성경)는 대략 B.C. 1500~400년대 사이 오랜 세월을 거쳐 바빌로니아, 팔레스티나, 이집트 등 지역의 유대인과 중동의 전승을 유대교 입장에서 기술한 책으로 많은 세월을 거쳐 약 기원전 5세기 경에 한 책으로 정립되었다.

유대인 전승에 따라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의 확립에 관해 여러 전승이 전해지나, 70년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 사두가이파, 켈롯파, 에세네파 등 다른 유대종교 종파가 사라진 이후 바리사이파가, 당시 신흥 종교로 대두된 기독교에 맞서 기원후 90년경에 개최한 양니아 회의때 현재의 분류가 확립되었다는 그라츠의 가설이 현재로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나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약성경과 배열순서가 동일하며, 교파에 따라 서로 빠지거나 더해진 책들이 있다.

<타나크 : 유대교 성경을 분류한 율법서(토라5)+예언서(네비임8)+성문서(케투임11) 앞 글자>

※양니아 종교회의 : AD70 예루살렘 성전 붕괴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대종교 일파인 ‘바리새파’가 유대교를 재건하고 유대교를 구성하였던 종교회의.

기독교에서 구약성경과 함께 경전으로 다루는 신약성경은,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기독교의 회중들 사이에, 예수를 직접 보았던 사도들의 사후에도, 그들의 언행과 신앙 관련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후세에 잇기 위해 경전으로 정립한 것으로, 코이네 그리스어로 작성된 가장 오래된 사본을 필두로, 다양한 언어의 필사본들이 기독교의 팽창과 더불어 제작되었다.

382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경전으로 정해진 이들 책들을 <신약(New Testament)>이라고 칭하기로 한 것은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였다.

<구약성경>

구약성경(Old Testament)의 명칭은 '옛 약속'이란 의미로, 문학 형태에서 보면 다른 고대 서아시아 문학과 같이 모세의 5서(토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문서 외에 구전·실화(소돔과 고모라가 야훼의 징벌로 유황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시가·권계·족보 등으로 되어 있고, 역사서도 롯기와 에스더 등 문학적 소품과 영웅 기록(사울, 다윗, 사사 이야기 등)·시가·우화·권계·족보·연대기 등으로 되어있다. 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서·스가랴서 9장 이하는 묵시문학에 속한다.

문학서로 율기·전도서·잠언이 지혜문학이며 시편·아가는 시가(詩歌)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의 내용은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걸친 1천 년 이상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생활을 그 바탕으로 한다.

※모세오경은 구전으로 인한 서술로 기록되었다. 그중 창세기는 1500년이나 지난 구전과 설화등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세 사경은(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탄생후 기록된 것이므로 더 실체가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씌어졌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뉘며 내용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해석한 복음서들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4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 1권, 바울이 목회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주기위해 교회에 보낸 목회편지(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 또 바울 이외의 편지(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8권과,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 합계 27권으로 되어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과 교훈(복음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비유대인에게로 전파된 과정(사도행전),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자세(서신서), 종말론적 신앙과 최후 승리(계시록/묵시록)를 집대성한 문서이다.

현재의 문서는 A.D. 50-150년(100년)에 걸쳐 성립되었다.

신약성경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토대로 하여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재림으로 끝을 맺고 있다.

※신약은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졌으므로 실제성이 증명된 것으로 허구나 우화가 아닌 실화이다.

<카톨릭 성경>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공의회와 히포,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 목록이 구약 44권, 신약 27권 총 71권이라고 결정한 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외경 부정 주장에 맞서 기존의 성경 목록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예레미야 애가와 바룩서가 별도 문헌으로 독립되어 나와 구약 46권, 전체 73권으로 재분류되었다.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원본이 있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으로 총 66권만을 확고한 성경전서로 인정한다.

『성경의 유래』

<구약 성경의 유래>

1. 고대 구전(Oral Tradition) 시대

- 최초의 구약 성경은 구두로 전승됨.
- 창세기, 출애굽기 등의 이야기들이 부족 사회에서 이야기 형태로 전해짐.
- 모세 시대(기원전 15~13세기)부터 서서히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

2. 히브리어 원전 형성 (BC 10~2세기)

- 토라(율법서, 모세오경) 정립.
BC 10세기경, 솔로몬 왕 시대에 토라(창세기~신명기)가 정리됨.
- 예언서(네비임) 및 성문서(케투빔) 추가함.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와 성문서(시편, 잠언, 욥기 등)가 점진적으로 기록됨.
BC 5세기경 에스라 시대에 토라가 공식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경전으로 자리 잡음.
- 사해 사본(BC 2세기~AD 1세기)
20세기에 발견된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은 기원전 2세기경 필사된 구약의 일부를 포함.
히브리어 원문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3. 칠십인역 (LXX, BC 3~2세기)

-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어(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칠십인역(Septuagint, LXX)이라 불림.
-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포함하는 외경(제2경전) 일부도 이 시기에 번역됨.

4. 마소라 본문 (AD 7~10세기)

- 유대 랍비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표준화하고, 모음과 억양 기호를 추가하여 정리.
- 오늘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됨.

5. 중세 및 종교개혁 시대의 번역본

- 불가타(Vulgate, AD 4) : 성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 틴데일 성경 (1525년) :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
- 킹 제임스 성경 (1611년) : 마소라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의 대표적 버전.

사본(Manuscript)이란 원본의 보존을 위해 필사(transcription)된 것이지만 원본이 사라진 후엔 이전의 사본을 필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원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사본의 재질로는 파피루스(Papyrus)와 양피지(Parchment)의 두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형태별로는 낱장을 모아놓은 단편(Piece), 책처럼 편철한 코덱스(Codex), 그리고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잇대어 만든 두루마리(Scroll) 형태의 사본들이 있다.

<파피루스(papyrus)는 종이 발명되기 이전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 같은 이름의 갈대과의 식물 줄기를 압착하고 이를 얇게 발라내어 만든다>

<양피지(parchment)는 양가죽에서 털을 벗겨낸 뒤에 만든 서양의 종이 이전의 기록매체이다.>

구약은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되어 왔고, 신약은 교부들과 수도사들에 의해 필사되어 왔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본의 필사자들은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베끼긴 했지만 방대한 분량을 일일이 손으로 쓰다 보니 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본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위적 오류는 종류가 다양하여 중복, 탈락, 도치(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 융합(다른 종류의 것을 한 가지 상태로 결합하는 것), 분리, 오사(내용을 잘못 씀), 오독(내용을 잘못 파악하거나 틀리게 이해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때로는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구약의 경우는 모음이 개발되기 전에 자음만으로 기록할 때 오류가 많았을 것이고, 신약의 경우는 띄어쓰기가 없던 대문자 사본에서 오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사본의 경우 전적으로 일치하는 사본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실수와 더불어 필사자의 신앙과 신학적 배경에 따라 의도적으로 부분적인 첨가와 삭제의 관행이 있었음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들의 보존 상태도 문제가 된다.

사본의 재질은 보통 양피지와 파피루스였으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훼손된 채 발견되므로 사본 중에서 온전하게 참고할 만한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이렇게 사본이 희귀하고 보존성에 의문이 많게 된 데다가 수많은 역본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성경 원본이 가르친 진정한 뜻은 사라지고 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존재하였다.

I . 구약 사본

구약 사본은 파피루스 형태가 드물고 대부분 양피지에 기록한 것들이 많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수는 약1,000여개로 추정된다. 구약 사본의 경우 고대에 벌써 사본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D 2세기경의 랍비 아키바(50-138. 최초 탈무드 편집인)는 당시에 산재한 사본들을 집대성하고 정리하여 정권적인 히브리어 성경을 제정하고자 주창하였다. 이를 계기로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많은 구약 주석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절(clause)의 구분과 각종 부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노력은 계속되어 마침내 6-7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이 만들어짐으로써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마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Codex Massora)은 전권이라는 뜻을 가진 마소라(Massorah) 학자들에 의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히브리어는 원래 별도의 모음이 없이 단어를 이루는 글자 자체의 고유한 소리를 일일이 기억하여 발음하였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생활로 인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팔레스타인에서조차 히브리어가 그들의 생활 언어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히브리어 발음이 유실될 우려가 있게 되자, 마소라 학자들은 발음의 보존을 위하여 새롭게 히브리어의 모음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마소라 모음이라고 한다. 마소라 사본은 모든 자음에다 새롭게 고안된 모음을 붙여서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함에 있어서 다시는 개인적 오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글자 수와 글자 배열까지 치밀하게 규정한 표준 필사 법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한 성경은 여지 없이 폐기하는 엄격함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히브리어 성경은 비교적 정확하게 보존되어 갔다.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은 자신들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본을 참조하여 그들 나름의 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해 사본>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 중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이다. 사해 사본은 쿨란 사본(Codex Qumran)이라고도 하는데, 1947년 사해 근처 쿨란의 여러 동굴에서 양치는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사해 사본은 BC 2-1세기경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때 쿨란 종단에 속한 유대인들이 동굴에 은거하면서 당시의 성경을 필사한 것들인데, 외경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과 마소라 사본을 대조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곧 마소라 사본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기타 사본>

그밖에 유명한 사본으로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오경의 일부만이 보존된 나쉬 파피루스 사본, AD 9 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자음만으로 되어있는 대영박물관 사본, 현재 히브리 대학에서 발간 중인 HUB 히브리어 성경의 모체가 되고 있는 알렘포 사본 등이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 중에서 주전에 필사된 사본은 사해사본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소라 인쇄본>

1450년 구텐베르크(Gutenberg)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인쇄된 마소라 사본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일 처음 히브리어 성경이 인쇄된 것은 1477년에 시편이었다.

곧이어 1488년에 구약 전문이 인쇄되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인쇄본의 효시이다.

이후에 몇몇 히브리어 성경이 계속해서 출간되었는데, 그중에서 1524년에 야곱 벤 하임이라는 유대인에 의하여 편집되고 봄베르그가 출판 제작한 ‘제2 랍비성경(Bombergiana)’이 가장 유명하다. 벤 하임의 제2 랍비성경은 기존의 마소라 사본들을 최대한 참고하여 편집한 것으로 20세기까지 세계 모든 구약성경의 근간이 되었다.

<레닌그라드 사본>

독일 신학자 키텔은 1906년 벤 하임의 제2 랍비 성경을 토대로 BHK(Biblia Hebraica Kittel)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 두 권을 차례로 펴냈다. 그런데 키텔은 1937년에 제3판(BHK)을 내면서 본문을 벤 하임 인쇄본 대신 레닌그라드 사본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벤 하임 인쇄본이 15세기에 편집된 작품임에 비하여, 레닌그라드 사본은 9세기경의 권위 있는 랍비인 모세 벤 아셰르가 직접 필사한 것이었고, 또 전문이 훼손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1977년에 독일성서 공회는 BHK의 오기와 난외에 마소라 주기를 보충하여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II. 신약 사본

신약 사본은 구약 사본보다 훨씬 더 많아서 약5,000여 종류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약3,200여 종이 되며 나머지는 헬라어로 된 성구집과 설교들이다.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은 소량이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이다.

신약 27권의 최초의 글은 처음에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피루스의 훼손되기 쉬운 성질 때문에 보존을 오래 할 수 없으므로 곧 필사본이 만들어져야 했고, 성경의 원본들이 얼마 후에 유실된 후에는 파피루스 사본들만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파피루스보다 재질이 견고하고 보존이 용이한 양피지가 개발되면서, 파피루스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은 크게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의 두 계열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다.

대문자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계열 초기의 사본으로 숫자가 적게 발견되어 소수 사본이라고 하며, 소문자 사본은 비잔틴 계열의 다수 사본으로 대부분 9세기 이후 시대의 사본이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대문자 사본이 소문자 사본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오래된 연도로만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문자 사본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못했고 오히려 소문자 사본들이 원본에 가까워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에 공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양자를 같이 비교하며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 일방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본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원본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본이기 때문이다.

<파피루스 사본>

신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파피루스 사본은 AD 2세기부터 8세기경까지 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약90여종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파피루스의 약한 특질상 많이 파손된 상태의 단편들뿐이며, 따라서 아쉽게도 어떤 파피루스도 신약의 완비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파피루스 사본은 대문자 P로 표시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한 조각의 P52라는 사본으로서 AD 13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한 면에는 요한복음 18:31-33까지, 다른 면에는 18:37-38이 씌어있다. 그밖에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P90과 P98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개 3세기 이후의 사본들이다.

<대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Majuscules)을 언셜체(Uncial) 사본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까지 약 300여종이 발견되었으며 소문자가 개발되기 전까지 파피루스 사본과 함께 8세기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파피루스 재질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양피지는 질겼지만, 글씨를 쓰기는 불편하였다. 더군다나 고대에는 초서체의 소문자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대문자로 기록하였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상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대문자 사본은 숫자가 적으므로 소수 사본(Minority Text)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와 가이사라와 라틴을 비롯한 서방 지역에서 주로 많이 제작되었으므로 서방의 대표적인 지명인 알렉산드리아의 이름을 따라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문자 사본은 소문자 사본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나 발견된 시기로는 오히려 소문자 사본들보다 늦은 것이 대부분이다.

유명한 것들로는 먼저 4세기경의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이 있다.

장식이 없어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히브리서 일부와 목회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없다. 그리고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도 4세기경의 것인데 구약의 일부를 빼고 신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사본이다.

그다음 5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anus)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개의 사본은 모두 신약뿐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본들이다.

5세기경의 사본으로서 원래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했으나 12세기에 그 성경 본문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기록한 에브라임 사본(Codex Ephraem)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인 베자에 의해 수집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포함된 베자 사본(Codex Bezae)과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어록까지 포함된 워싱턴 사본(Codex Washington)도 있다.

그밖에 6세기경의 클라로몬타노 사본(Codex Clariontanus)과 라우드 사본(Codex Laudianus)이 있고, 8세기경의 레기우스 사본(Codex Regius)이 있다.

<소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Minuscules)은 대문자 필사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초서체 소문자를 고안하여 필사하였기 때문에 초서체 사본이라고 부른다.

대문자 사본은 글씨가 화려하고 크며 더군다나 띄어쓰기하지 않아서 필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초서체 소문자 사본은 비교적 빠르고 쉽게 필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곧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약2,800여종이나 발견되었으며 다수 사본(Majority Text)이라고 부른다. 또 2,000여종의 성구집(Lectionaries)과 설교집도 거의 초서체 사본들이다.

서로마 지역은 주로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헬라어 성경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헬라어 필사본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나, 비잔틴 지역의 동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어 문화권이었으므로 계속해서 헬라어 필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잔틴 지역에서 많이 제작된 소문자 사본을 서로마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과 대비하여 비잔틴 계열 사본이라고도 부른다.

소문자 사본은 9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 1450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 서양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많이 필사되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소문자 사본은 파피루스 시대와 대문자 사본 시대를 거쳐오면서 훨씬 후대에 필사한 것이므로 고대 사본들과 비교하면 더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신빙성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들로는 비잔틴 사본(Codex Byzantine), 안디옥 사본(Codex Antioch), 시리아 사본(Codex Syrian)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동로마 지역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인정되고 수용된 사본들이지만, 그것들도 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상에 존재하는 사본간에 완전한 일치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곧 인간이 필사한 사본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원본에서 조금씩은 이탈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만일 원본이 아닌 필사본에 불과한 어떤 사본을 맹신하면서 또 융권성 없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경직화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약 헬라어 사본의 인쇄>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자들의 손에 의해 계속 보존되어 왔으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즉, 1450년 구텐베르크가 자신이 발명한 인쇄 방법으로 라틴 불가타 인쇄본을 출판한 이래 필사본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인쇄기에 의한 대량 출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헬라어 사본을 최초로 인쇄한 것은 1514년<여러번역 대조성경(Complutensian Polyglot)>에 실린 헬라어 신약이었으나, 헬라어 사본이 독자적으로 인쇄·출판된 것은 1516년 에라스무스가<헬라어 신약성경>을 발표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인문주의 신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주로 동로마 지역에서 사용되던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들을 종합하여 1516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하였는데, 최초의 인쇄된 헬라어 사본으로 간주 된다. 당시 에라스무스는 신약 전체가 포함된 사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본을 종합하고 편수하여 새로운 본문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으며, 헬라어 사본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라틴어 불가타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재구성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에라스무스는 결국 가능한 대로 헬라어 신약성경의 원본을 복원하고자 한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본문은 표준원문 또는 수용원문(Textus Receptus)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계속 수정·보완되어 전부 5판이 출판되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후에 스테파누스의 헬라어 성경을 비롯하여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역 성경과 틴데일의 영어역 성경 등의 번역 모체가 되었다.

<스테파누스의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에 뒤를 이어 여러 형태의 헬라어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이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을 반영하여 편수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프랑스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 1550년에 출판된 헬라어 성경이다. 그는 구약은 마소라 사본을 채택하여 신구약이 포함된 원어성경을 펴냈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로 본문 비평적 편집으로 출판되었으며, 또한 제4판부터는 숫자로 절을 구분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또 1553년에는 제네바에서 올리베탕(Olivetani)의 불어 번역본도 출판하였는데, 여기서도 장, 절을 구분함으로써 이후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

장의 구분은 원래 13세기 켄터베리의 주교(Cardinal)였던 랑톤(Langton)이 한 것을 그대로 준용하였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역시 13세기에 카로의 주교였던 유고(Hugo)가 장의 구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베자의 헬라어 성경>

칼빈의 뒤를 이어 스위스 개척교회의 지도자였던 베자는 성경 수집과 사본 연구에 힘을 쏟아 ‘대문자 베자사본’을 발견하였고 또한 ‘헬라어 신약성경’과 ‘라틴어 번역성경’ 등을 출판하였다. 그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은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된 사본 편집의 방법을 따라 그때까지의 사본들을 수집하여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베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대문자 사본인 베자사본과 기타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들을 편집하여 헬라어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고 나서 1565년부터 40년 넘게 수정을 거듭하면서 무려 10판을 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헬라어 신약사본은 1611년 발행된 영어 흠정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엘제비어 형제의 표준원문>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을 편수하여 종합한 본문을 표준원문 또는 수용원문(Textus Receptus)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1633년 독일의 인쇄업자였던 엘제비어(Elzevier) 형제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들은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의 본문을 재구성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면서 서문에서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본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후부터 수용원문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으며, 줄여서 TR사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엘제비어의 헬라어 성경은 7개판이 나왔는데, 따라서 에라스무스판 5개, 스테파누스판 4개, 베자판 10개를 합치면 TR사본은 모두 26가지가 유권되었다.

<웨스트콧 - 홀트 헬라어 성경>

17세기에 만들어진 TR사본들은 이후에 계속 보급되어 18-19세기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들어 본문비평의 발달로 TR사본의 가치가 의심스러워지면서 새로운 헬라어 성경의 출판이 예고되었는데, 몇몇 신학자들은 TR본문의 근거가 된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더 오래된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문자 사본을 근거로 하여 비평적 편집에 의하여 본문을 재구성하여 새롭게 편집된 헬라어 성경들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881년 영국에서 성공회 소속인 웨스트콧(Westcott)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홀트(Hort)라는 두 신학자가 공동으로 출판한 헬라어 성경이다.

TR사본이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면, 이들에 의한 헬라어 성경의 본문은 주로 대문자 사본을 편수하여 만든 것으로 조금 뒤에 네슬레 헬라어 성경에 영향을 주었다.

<네슬레 헬라어 성경>

독일의 네슬레는 1898년 독일성서공회 지원을 받아 헬라어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Graece)을 펴내었다. 그는 웨스트콧과 홀트의 헬라어 성경과 몇몇 발행된 헬라어성경을 비교하고, 또 초기의 대문자 사본을 많이 참고해 가면서 다수의 사본들이 일치하는 새로운 본문을 만들었는데, 네슬레 헬라어 성경은 부자간에 대를 이어 계속 발행되어 20판까지 출판되었다.

네슬레 헬라어 성경의 특징은 사본간에 본문과 번역 및 교부들의 인용구까지 비교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본문을 채택하여 철저하게 비평적인 편집을 한 것인데, 판을 거듭할수록 우수한 본문으로 인정받으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권위있는 본문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TR사본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본문으로 평가되어 그 동안 누려오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네슬레-알란트 헬라어 성경>

네슬레 헬라어 성경은 21판 편집부터 역시 독일인인 알란트(Kurt Aland)가 참여함으로써 21판 부터는 네슬레-알란트판으로 불리게 된다. 이들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완하면서 거듭 수정판을 내었는데 네슬레판을 포함하여 1993년 현재까지 27판까지 발행되었다.

이들의 헬라어 성경은 기존의 대소문자 사본뿐 아니라 AD 200년대의 파피루스 사본까지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수많은 사본을 분석하고 편집한 것인데, 비평적인 편집으로 결정된 헬라어 본문과 우수성 때문에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현대 번역 성경들이 네슬레-알란트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70인역본 성경>

70인역(헬라어: Ημετάφρασις τῶν Εβδομήκοντα, 라틴어: septuaginta. '70'을 의미, LXX)은 현재 존재하는 구약성경 번역판 중 가장 오래된 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 또는 헬레니즘 그리스어(헬라어)로 작성되었으며, 현대에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성경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정경 위치에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인용 본문으로 사용하였고, 신학적 연구에서도 인용 본문으로 활용하였다.

히브리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